

# 국가의 화랑정신 호명과 김동리의 문학적 대응

- 『화랑외사』와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의 차이를 중심으로 -

전 계 성\*

- I. 문제제기
- II. 김범부의 풍류정신과 김동리의 신라혼에 대한 접근
- III. 전후 국가 재건에 호명된 화랑정신과 범부의 『화랑외사』(1954)
- IV.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에 나타난 화랑의 실제
- V. 마무리

## 국문초록

김동리의 소설에서는 화랑정신이나 신라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백형 범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연구자 대부분이 범부와 동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을 가졌기에 생성된 텍스트의 성격들도 유사한 관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화랑에 대한 범부와 동리의 관념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지만, 두 사람의 화랑에 대한 인식 차이도 간과하기 어렵다. 범부는 건국이념이 절실했던 1950년대 상황에 공명하여 『화랑외사』에서 화랑정신을 정치적으로 전

---

\*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참여대학원생.  
/ jjkssss@naver.com

유한 반면에, 동리는 신라인들의 삶의 구경을 그의 역사소설에서 구현하여 전유된 화랑 개념을 회복시켰다. 김동리는 군인으로서의 화랑정신보다는 샤먼으로서의 신라인 자체에 초점을 두며, 삶이 지닌 비극성도 인정하는 쪽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화랑외사』와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들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화랑외사』의 발문을 쓴 김동리가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겼다는 표현은 단지 백형에 대한 도리 때문이다. 그의 발문에 드러난 표면적 의도를 근거로 범부의 영향력을 절대시하는 관점은 김동리 역사소설의 독자적 세계관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김동리, 김범부, 화랑정신, 신라혼, 화랑외사, 역사소설, 문학적 대응

## I. 문제제기

김동리가 역사소설 창작을 통해 자신의 역사의식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역사의식을 드러내려 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랑 관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라정신=화랑정신=호국정신=국가이념=민족주의=김범부=김동리’라는 도식은 김동리가 화랑이라는 존재를 통해 마련하려 했던 세계를 정치적 부속물로 추락시킨다. 상기 등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재건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던 1950년대에, 화랑정신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통성으로 내세운 정부의 시책에 김동리가 맞맞춰 공명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발전에 있어 정신적 동력 공급의 일환으로 화랑정신을 환기시키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화랑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에서 활용한 화랑정신의 관념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김동리에게는 화랑과 화랑정신이 대척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화랑은 생의 구경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인간과 신의 결합을 보여주지만, 화랑정신은 인간 세계의 정치적 부흥을 위해 신성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문학이 정치에 복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김동리가 생의 구경적 형식을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인 화랑을 호국정신에 제한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동리의 역사소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화랑을 巫師가 아닌 武士 위주로 다룬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 김연철은 “종래의 학계에서는 화랑의 무사도를 강조한 나머지 흔히 이 진흥왕 이후의 국력신장 과정에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sup>2)</sup>다고 지적했

1) 화랑정신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화랑이 어떠한 정신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화랑의 종류 정신, 애국정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여기서 화랑의 본질적 의미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화랑정신이라는 것은 주로 국가가 정치적 목적에서 화랑을 호명할 때 발생하는 특정한 정신을 이른다. 일반적으로도 화랑정신이라 하면 생의 구경 탐구나 여신적 성격보다는 호국정신을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화랑의 본질과 국가에 의해 호명된 화랑정신은 다르다는 관점을 취한다.

2) 김연철, 「화랑정신의 사상적 맥락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20-1, 한국국민윤리학회, 1984, 85쪽.

다. 이는 화랑에 대한 관념을 국력신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범주에서 탈피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결국 화랑을 쑤가 아닌 武의 관념에 제한시킨다.

홍기돈은 “김동리에게 화랑이란 어떤 존재였던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범보를 통해 찾아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김동리에게 화랑정신을 심어준 이가 바로 범보였고, 범보가 이와 관련하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sup>3)</sup>라고 언급한다. 이는 화랑 인식에 있어 범부와 동리를 동일선 상에 놓는 관점인데 그 근거로 “김동리에게 화랑정신을 심어준 이가 바로 범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백형의 아우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에 치중한 분석으로서 범부의 화랑정신을 수용한 김동리의 독자적인 화랑 인식 발견과 그 문학적 대응의 참신성 발견을 제한한다.

남정희 역시 “범부가 『화랑외사』를 썼듯이 그는 신라 이야기를 써왔고, 70년대에는 시대적 지배담론에 부합하여 신라편 역사소설집을 출간하였다”<sup>4)</sup>고 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화랑 관념 이상의 것을 김동리 역사소설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논의들이 김동리의 독자적인 화랑 인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화랑외사』에 쓰인 김동리의 발문을 글자그대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발문에서 김동리는 범부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은의를 끼쳤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범부와 김동리 사이의 세계관 및 사상의 상동성 근거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범부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의 범주에 있는 민족주의자인데 범부가 어린 김동리에게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동리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고 해서 똑같은 사상적 가도를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기돈은 김동리의 작품 세계가 범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3) 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70쪽.

4) 남정희, 「『김동리 역사소설-신라 편』에서 원전의 기이성(奇異性)을 제거한 점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화회, 2014, 429쪽.

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김동리에 대한 범부의 지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둔다. 김동리가 백형 범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만으로 김동리 소설을 평가할 수는 없다. 김동리의 사상을 범부의 아류나 일부 계통으로만 본다면 ‘김동리=김정설’이라는 등식이 가능해지고 김동리는 범부와 같은 민족주의자가 된다. 물론 범부의 『화랑외사』 발문에는 “내 백씨(伯氏·만형)는 동기로서는 물론 스승으로서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은의를 나에게 끼쳐 주신 분”<sup>5)</sup>이라는 김동리의 언급이 있다. 그러나 친형이 발간하는 책의 발문에 이 외의 다른 언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sup>6)</sup> 김동리는 자신과 손소희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범부와 이미 소원해져 있었고, 그것은 단지 처신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차이를 의미했다. 물론 범부가 김동리에게 아버지와 스승의 역할을 하며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부자형제·사제 간에 추구하는 바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발문은 어디까지나 백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김동리 연구는 이를 근거로 범부와 김동리의 거리를 어떻게든 좁혀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띤다. 역사소설에 대한 논의들은 특히나 두 인물을 화랑이라는 관념 속에 함께 묶어두는 편이다.

그러나 이 글은 김동리의 독자적인 화랑 인식을 발견하고 그의 역사 단편소설, 나아가 『삼국기』, 『대왕암』 등의 장편으로 나아간 김동리의 의도에 접근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범부와 동리의 화랑 인식 차이에 주목한다. 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범부의 『화랑외사』와 동리의 1950년대 역사 단편소설들을 대조해 보아야 한다. 범부는 육군 장교 출

5) 김동리, 「발문」, 『화랑외사』, 범부선생유고간행회, 삼화인쇄주식회사, 1967, 197쪽. 『화랑외사』의 초판 발행일은 1954년 3월 30일이다.

6) 초판 『화랑외사』(1954)가 출간된 시점은 범부가 김동리를 심하게 나무라며 손소희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리는 발문에서 범부와 소원해진 관계를 노출할 수는 없다. 범부가 동리에게 아버지나 형의 역할을 하며 은의를 끼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를 통해 범부와 동리의 화랑에 대한 인식이 꼭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신이었고 『화랑외사』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교재였다는 점에서 1950~60년대에 국가 재건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활용된 화랑정신과 범부의 화랑 인식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들에 담긴 화랑 관념을 세분화하면 1950년대 말에 창작된 이 역사소설들이 국가 재건의 기초 이념으로 활용된 화랑정신과 근접해 있는지, 아니면 범부와는 전혀 다른 김동리만의 화랑 관념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화랑외사』와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에 나타난 화랑 관념의 대조 작업은 195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범부와 김동리의 문학적 대응 방식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하다.

## II. 김범부의 풍류정신과 김동리의 신라혼에 대한 접근

김동리의 역사소설과 김범부의 『화랑외사』의 차이를 대조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부의 동리에 대한 영향력과 동리에게 형성된 세계관의 간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리에 대한 범부의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 영향력 하나로 두 사람의 세계관이 한 줄기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리에 대한 작가론의 표본을 보인 김정숙은 『김동리 삶과 문학』에서 김동리에 대한 범부의 영향력을 매우 중요하게 기술한다.

동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육의 중단은 곧 범부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그것은 서양적인 것에서 동양적인 것으로의 입문인 것이다. 범부가 동리에게 끼친 영향은 동양에 대한 이해, 바로 그것이었으며 이것은 민족의 주체성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이다.<sup>7)</sup>

김동리의 동양에 대한 이해가 범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

---

7)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262쪽.

해야 할 것인가. 김동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범부라는 것은 부인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모든 행보가 범부의 영향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홍기돈은 김윤식이 김동리에 대해 “당초 성장 소설적 요소가 없었는데, 사상적인 내적 변화랄까 발전이 전무한 까닭이다. 어째서 한 신진작가가 당초부터 불변하는 사상을 자기 것으로 확립할 수 있었을까”<sup>8)</sup>라고 언급한 부분을 들어 범부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

김동리의 회고에 따르면 백형 범부는 어릴 때 신동으로 소문이 났을 만큼 천재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족의 유전인자를 간과할 경우 김동리의 천재성은 범부의 천재성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범부의 그림자 속에 김동리를 제한시키는 언급들은 ‘그렇게 뛰어난 범부의 동생 김동리에게 외부의 인식론적 영향을 스스로의 창조적인 세계 인식 체계와 논리로 변화·발전시킬 능력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다. 물론 홍기돈은 김동리의 문학을 범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홍기돈에게 김동리는 여전히 범부의 영향력에 따라 파생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범부가 남긴 『화랑외사』와 1977년 김동리가 상재한 『金東里 歷史小說-新羅編』을 비교해 보면, 김동리가 어떻게 범부를 따라가고 있는가는 한눈에 드러난다. 신라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료를 해석하여 소설적 상상력으로 살을 입히는 방식은 그만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부각시키려는 바가 신라정신의 정수라는 사실 역시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sup>9)</sup>

홍기돈에 따르면 『화랑외사』와 『김동리 역사소설-신라편』은 김동리가 범부를 따라간 흔적이며, 역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닮아있다. 신라정신의 정수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김

8)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문협정통과의 사상구조』, 아세아문화사, 1994, 59쪽.

9) 홍기돈, 「김동리의 소설 세계와 범부의 사상-일제시기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2, 한민족문화학회, 2003, 216쪽.

동리가 범부를 따라갔다는 언급이다. 홍기돈이 지적한 부분은 “신라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료를 해석하여 소설적 상상력으로 살을 입히는 방식”과 “신라정신의 정수”에 대한 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오로지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역사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 방식의 유사성은 세계관의 유사성으로 치환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큰 상호 연관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세계관도 포함될 수 있기에 좀 더 명확히 구별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김동리와 범부 두 사람이 각각 『김동리 역사소설-신라편』과 『화랑외사』를 집필한 의도가 ‘신라정신의 정수를 부각시키는 것’에 있다고 결론지은 것에 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들에서 신라정신의 정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신라정신의 정수를 무엇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동리와 범부가 공통적으로 신라정신의 정수를 화랑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리와 범부가 재현하고자 하는 신라의 정수를 상호 구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신라=화랑정신’이라는 도식을 적용하면 김동리와 범부는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공통적인 줄기에 놓인다. 이렇게 넓은 범주 내에서 김동리 역사소설을 볼 경우 김동리가 추구한 신라혼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다. 실상은 김동리와 범부가 강조하는 신라정신의 정수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범부는 신라정신의 정수를 화랑에 있다고 보며 그가 말하는 화랑의 핵심은 풍류정신이다.

花郎의 운동은 원래 신라에서 위주한 것이지만 그 정신과 풍격만은 당시로는 백제, 고구려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요, 또 후대로는 고려, 한양을 통과해서 금일에 이르기까지 그 혈맥은 의연히 약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花郎外史〉는 신라만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고려, 이조까지의 열전을 隨時해서 公刊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자에게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花郎을 正解하려면 먼저 花郎이 崇奉한 風流道의 정신을 이해해야 하고 風流道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모름지기 풍류적



인물의 風度와 생활을 翫味하는 것이 그 요체일지라 그래서 그 玄妙한 風流道の 연원을 默想하던 나머지 勿稽子 百結先生을 발견한 것이니 누구든지 진실로 <花郎外史>를 詳讀하는 이는 勿稽子 百結先生으로부터 그 讀次를 취하면 거기에는 암연히 일맥 관통의 묘리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sup>10)</sup>

범부는 풍류정신이 선대에는 어떤 뿌리를 지니는 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선대의 풍류정신이 품고 있는 화랑의 원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후대까지 전해진 화랑 운동의 혈맥을 강조한다. 이는 범부가 화랑이 신라정신의 정수이며 뿌리 그 자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다. “玄妙한 風流道の 연원을 默想하던 나머지 勿稽子 百結先生을 발견한 것”<sup>11)</sup>이라는 언급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계자는 신라 10대 내해왕 때의 인물이고 백결선생은 20대 자비왕 때의 인물이다.

물계자와 백결선생은 개별 작품의 분량으로는 많은 편에 속한다. 이 점은 범부가 풍류를 중시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 두 작품은 개별 작품으로서의 분량이 많을 뿐, 『화랑외사』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무사 화랑의 희생 예찬이다. 게다가 범부는 <물계자>와 <백결선생>의 역사적 배경이 가장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다함>(24대 진흥왕)을 『화랑외사』의 맨 앞에 배치했다. 화랑도의 연원을 목상한 후 발견했다는 물계자와 백결선생은 사실상 분량 면에서도 화랑의 군사적인 활약상을 다룬 작품들보다 철저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화랑외사』의 주조는 화랑정신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풍류도 자체라기보다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무장한 武士 화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풍류정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목은 풍류정신이지만 제1부 ‘화랑’에는 역시나 <사다함>과 <김유신>이 <물계자>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 사다함과 김유신은 武士 계열 화랑인 반면에 물계자는 武를 부분

10) 김범부, 『풍류정신』, 정음사, 1987, 3~4쪽.

11) 김범부, 앞의 책, 4쪽.

으로만 취하는 巫師 화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범부가 진흥왕 때 생긴 화랑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풍류도 그 자체를 경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부는 “花郎을 正解하려면 먼저 花郎이 崇奉한 風流道の 정신을 이해해야”<sup>12)</sup>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의도와 결과 사이에 이러한 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범부가 풍류도의 근본정신이 잘 내면화되어 있는 물계자와 백결선생을 흠모하였으나 1950년대 국가 재건에 관여하면서 그 근본정신이 정치성을 띠고 윤색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범부가 처음부터 자민족중심주의에 입각한 보수파로서 국가 재건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박정희의 국가 재건을 돕기 위해 정신적 원동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경우이다.<sup>13)</sup>

5·16 군사혁명은 정녕구 사(九死)의 결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혁명에 당국했던 사람들은 죽는다는 난관을 아홉 번까지 통과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관절 이 사람들의 국가관은 무엇이나? (...) 5·16 혁명동지들은 어떠한 국가관을 가졌던가? 그리고 또 4·19 의거 때 죽음을 내가 먼저 죽겠다고 경쟁하다시피 그 청춘의 생명을 낭만(爛漫)하게도 던진 그 순정(純情)은, 그 국가관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또 사십년 동안 왜적과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고 싸우던 우리의 애국지사들, 이 사람들의 국가관은 어떠한 것이던가? 기미년 3·1 운동에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그 무수한 의민(義民)의 국가관은 어떠한 것이던가?<sup>14)</sup>

김범부는 『정치철학특강』에서 “5·16 혁명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의 박정희 정권과 공명한다. 박정희와 그 추종자들이 정권을 쟁취하는

12) 김범부, 앞의 책, 4쪽.

13) 정다운은 “해방 以後,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복과는 구별되는 남한 고유의 정체성을 세울만한 이념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김성봉의 『화랑전기』(1946), 계림사출판부에서 편집한 『화랑도』(1949), 이선근의 『화랑도 연구』(1949)가 등장했고, 김범부의 『화랑외사』도 앞선 책들과 마찬가지로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출간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凡父 金鼎高의 『花郎外史』에서 본 「花郎觀」, 『동북아 문화연구』 1-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132~133쪽 참조.

14) 김범부, 『정치철학특강 -범부유고-』, 이문출판사, 1986, 108쪽.

과정에서 죽음의 난관을 여러 번 넘긴 고층이 있다 하여, 이들의 국가관을 4·19 의거, 일제강점기 해외독립투쟁, 3·1 만세운동의 국가관과 동일시하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화랑의 풍류정신을 좇아 당도한 곳이 이러한 국가관이라면 범부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만하다. 더더구나 그의 『풍류정신』에서도 정확히 풍류정신이 어떤 것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범부는 풍류도의 연원이 되는 물계자와 백결선생을 통해 풍류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힐 뿐이다.

문제는 『풍류정신』에서도 정작 <물계자>가 맨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물계자는 죽음을 무릅쓰거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은 아니다. 수양의 정도가 높아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침략한 적을 무찌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는 이미 신선이라 할만하다. 『화랑외사』나 『풍류정신』은 화랑에 관한 저서이며 저서의 첫 부분은 모두 군인의 표본 역할을 할만한 <사다함>과 <김유신>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랑외사』의 <물계자>와 <백결선생>을 보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선적인 면모를 두 인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계자와 백결선생은 다른 화랑들과 이질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점도 의문스럽다. 김범부가 추구하는 풍류정신이 완전히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거짓 논리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범부의 행보를 물계자나 백결선생의 풍류정신과 나란히 위치시키기도 어렵다.

5·16 군사정변을 3·1운동의 정신에 견준 범부의 사상 가운데 풍류정신이 가로놓여 있는 모순적인 상황은, 본격문학을 주창한 김동리가 문단 권력을 쟁취하는 이중적인 상황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김범부와 김동리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로 평가받을 만도하다. 하지만 신라정신의 정수인 화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기가 어렵다.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화랑의 속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김범부는 우리 무속의 전신이 화랑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속은 퇴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 화랑도의 풍류정신은 곧 모든 문화의 원천이자 인격의 이상이며 수신치평의 경범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김동리는 “화랑을 두고 무사도 풍류도니 하는 따위는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랑도의 중심사상을 무속, 또는 무교로 보았다. 김동리는 김범부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재해석 변형하고 있다. 그는 화랑의 신적인 요소에 강조점을 둔다.<sup>15)</sup>

이는 김범부와 김동리의 화랑의 속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김동리의 화랑에 대한 언급만 보아도 그는 스스로 범부가 추구하는 풍류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배경으로 삼는 역사적 시기를 어디까지 소급하느냐에 있다. 김범부가 주목하는 풍류정신의 기원은 신라 10대 내해왕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다. 『화랑외사』나 『풍류정신』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역사적 시기를 다룬 작품은 <물계자>인데 물계자는 10대 내해왕 대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는 물계자 이전의 인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범부의 언급들로 미루어 볼 때 풍류정신은 신라 10대 내해왕까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김동리가 주목하는 화랑의 무교적 성격은 역사소설 <석탈해>의 한배님에 대한 제의 행위 서사에서 드러난다. 석탈해는 신라 4대 왕으로서 <물계자>의 배경인 내해왕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선다. 김동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배님이나 검님이라는 숭배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신라 초기가 아닌 단군 시대까지 신라혼의 기원을 소급한다.

---

15)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3, 284쪽.

### III. 전후 국가 재건에 호명된 화랑정신과 범부의 『화랑외사』(1954)

해방기는 국가의 재건이 시급히 요구되었던 시기였다. 빠른 재건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 중 하나가 화랑정신이었다. 황종연은 이승만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선근이 ‘화랑정신을 계승한 애국청년 양성’을 국민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를 ‘화랑전통 날조의 효시’라 비판한다.

해방 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에 취임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선근은 신라 화랑을 민족의 “독립정신”을 구현한 청년집단으로 선양하고 이른바 화랑정신을 계승한 애국청년 양성을 국민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194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의 박사논문 『화랑도연구』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에서부터 동학운동과 3·1운동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들에서 발견되는 민족의 정치적 의지를 모두 화랑정신의 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화랑 전통의 날조라고 부를 만한 작업에 효시를 이루었다.<sup>16)</sup>

김흥규는 자강운동기의 역사서들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하야시 다이스께가 삼국사기를 차용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을 들어 황종연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제 관변학자가 발명한 통일신라 담론이 화랑정신의 원류이자 전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역사로서의 ‘신라’에 대한 정치적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 그 중 이선근이 주목한 화랑정신은 다분히 민족주의적이면서 정치적인 것이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 주춧돌 역할을 했던 신라 시대의 화랑을 다시 호명한 것은 박정희 정권에서도 자주 활용된 방법이었다. “국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 신라의 인물이나 사적을 소환하는 것은 특히 박정희 정부 하에서 판에 박힌 민중 동원과 규율의 수사학이었다”<sup>17)</sup>고 황종연은 지적

16) 황종연, 「신라의 발견 - 근대 한국의 민족적 상상물의 식민지적 기원」, 『신라의 발견』, 황종연 엮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18쪽.

한다. ‘베트남 참전 장병을 화랑의 후예라고 한 것’(1965.10.12.)이나 ‘경주 통일전 건립을 지시한 것’(1974)은 화랑이 정부의 시책 활성화나 정권유지에 있어 좋은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sup>18)</sup>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김범부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이후 새 국가 건설의 사상적 스승으로 삼은 분이 김범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년대와 60년대 초기의 혼란을 바로 잡는 일에 공산주의 척결, 국민윤리 정립과 교육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 것에선 범부 선생의 ‘건국 사상’과 방략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  
‘범부연구회’ 회장인 최재목 영남대 교수는 한 심포지엄에서 “범부는 박정희 정권이 사라지면서 함께 잊힌 사상가다. 그는 박 정권의 건국철학을 구상했고, 새마을운동의 기초 단계를 초안한 인물이다.”고 말했다.<sup>19)</sup>

『화랑외사』의 저자 범부가 박정희 정권의 건국철학을 구상했다는 것은 화랑의 정치수단화를 의미한다. 범부에게 있어 더 궁극적인 것이 화랑인지 국가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국가이다. 그는 『범부 유고: 정치철학특강』에서 5·16군사정변의 주도자와 4·19 의거 순교자, 일제강점기 애국지사, 3·1운동 참가자의 국가관에 대해 피력했는데 이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숭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신라시대 화랑의 임전무퇴 정신과 닮아있다. 범부가 주장하는 위국헌신의 국가관을 보며 화랑 관창이 떠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범부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에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에 대해 혁명동지라고 호명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박정희와 범부가 건국 정치 이념

---

17) 위의 글, 18~19쪽.

18) 같은 글, 18~19쪽 참조.

19) 소종섭, 「김범부-박정희, 김평우-박근혜, 2대에 걸친 인연」, 『시사저널』 1431, 2017.3.21.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324>, 2019.10.7. 검색.

면에서 통하는 면이 있었다면, 정중섭의 증언, 즉 박정희가 범부를 ‘새 국가 건설의 사상적 스승’으로 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범부가 5·16군사정변의 주도자를 3·1운동 순교자들과 같은 반열에 둔 것은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부의 민족주의는 군인의 본분이 되는 위국헌신의 정신과 쉽게 결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화랑정신의 요체인 세속오계의 임전무퇴와 관련된다. 『화랑외사』는 범부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행보의 과정 속에 등장한 것으로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주조를 이룬 국가 재건의 뿌리가 된다. 박정희가 베트남 파병 장병을 두고 ‘화랑의 후예’라 칭한 것도 범부의 『화랑외사』가 담고 있는 화랑의 위국헌신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화랑외사』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화랑은 신라 진흥왕 대에 살았던 사다함이다. <사다함>에서 범부는 노래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식기 전에』라는 노래로, 사다함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한 무관랑(武官郎)이라는 친구가 작곡을 하고 사다함이 가사를 붙인 것이다.

『식기 전에』(全文)<sup>20)</sup>

잔을 들어	님하 아손 님
사랑으로 고인 잔을	늘 보아도 아손 님
식기 전에 이 잔을 들어	고이려 고이려 무엇으로 고이려
피는 뛰어	지고자 나는
피는 살아	애달픈 꽃이여
어젊은 피는 붉어 붉어	시들기 전에 저 버리고자

범부는 이 노래에 대해 “여기 『님』이란 것은 물론 어떠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다함의 심장에는 『나라』란 것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범부는 또한 『일본서기』 欽明記 二十三年條에

20) 김범부, 『화랑외사』, 범부선생유고간행회, 삼화인쇄주식회사, 1967, 23~24쪽.

기록된 사료에 근거하여 加羅와 倭國 연합군의 신라 침략과 사다함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 이 대목은 『화랑외사』의 화랑이 범부 스스로 언급했던 본래적 화랑의 면모, 즉 종교성·예술성·군사성 가운데 군사성이 가장 부각된 형태임을 잘 보여준다.

<사다함> 다음에 실려 있는 <김유신>에서도 “화랑 김유신은 낮밤으로 이러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케 할 수 없는가고 생각”<sup>21)</sup>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사실 김유신에 대해서는 굳이 『화랑외사』의 <김유신>을 인용하지 않아도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하여 화랑의 군사성을 극대화시킨 인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김유신이 말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화랑외사』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범부가 화랑의 종교성이나 예술성보다 군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부의 <김유신>에 따르면, 사랑하는 여인 천관 앞에서 말목을 자른 행위는 낭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했고 낭도들 가운데 하나가 김유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김유신은 “첫째 화랑을 살려야지 나는 원채 길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만한 뜻으로 알고 이로부터는 더 한층 정신들을 차릴 뿐이야”라고 대답한다. 천관을 수양녀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로 받아들였던 백결선생은 말목을 자른 것이 김유신 자신도 예상치 못한 창작이라며 천관은 “뗏가락으로써 통하”여 김유신이 말목을 자른 것을 짐작했다고 말한다.

범부의 입장에서 김유신은 화랑정신을 살리기 위해 사사로운 욕망을 잘라낸 것인데, 이는 김유신이 말목을 자른 이후 “화랑들 사이에는 아닌 게 아니라 새 정신을 차리는 삼엄(森嚴)한 공기가 돌았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이 때 ‘새 정신’이란 巫師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바탕이라기보다는 武士가 가져야 할 군인정신에 더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부가 백결선생의 말에서 나온 ‘뗏가락’보다 군인정신으로서의 ‘화랑정신’을 우선시했다는 데 있다. 범부가 “우리 화랑은 나라를 살리는

---

21) 앞의 책, 34쪽.



데 어떤 보수도 기대하는 법이 없소이다”(71), “화랑은 죽음은 있어도 패전은 없는 것이다”(74)라는 김유신의 말을 부각시키는 것도 ‘화랑=국가수호자’라는 등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멧가락’은 세속오계와 같은 규율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화랑의 모습으로서 국가로부터 호명된 대상이 아니다. <김유신>에서 천관이 부른 『사용애가락』(望夫詞)이나 “울지 못한 새가 되고 깃지 못한 개가 되어”라는 시나위(鄉歌) 가락이 슬픈 정조를 담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사다함>에서 사다함이 병들어 죽은 무관랑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 범부가 “사람의 생각은 이따금 자연 이상으로 자연스러운 때가 있는 것”<sup>22)</sup>이라고 말하는 것도 ‘멧가락’을 염두에 둔 결과다.

<김유신>에서 김유신이 화랑을 살리기 위해 말목을 잘랐다는 것과 백결선생의 ‘멧가락’ 언급 모두에 주목할 경우, 범부의 화랑정신은 사실상 두 갈래가 된다. 하나는 호국정신으로 무장한 화랑이고, 다른 하나는 슬픈 운명을 타고 난 ‘화랑이’이다. 전자는 武士인 반면, 후자는 巫師이다. <김유신>에는 두 가지 화랑의 면모가 모두 드러나기는 하지만, 김유신의 결론은 그러한 우울함의 정서를 뿌리치고 화랑을 살리는 것이었다. 우울함의 정서란 김유신 내면에 있던 것인데 천관의 시나위 가락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천관에게로 다가가는 것에서 드러나며, 이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관련된다. 이러한 김유신의 내면은 국가의 위기, 신라에 편입된 가락국 왕실 자제로서의 본분, 낭도를 이끄는 화랑으로서의 책임감 등에 의해 巫師에서 武士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사다함>에서도 그 두 면모는 함께 드러난다. 加羅와 倭國 연합군을 격퇴하는 사다함의 모습은 임전무퇴의 기상을 드러내며, 병들어 죽은 무관랑을 따라 목숨을 끊는 사다함의 모습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운명을 지닌 화랑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도 범부가 인식하는 화랑의 면모를 두 갈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의 차이를 염

22) 앞의 책, 29쪽.

밀히 따져본다면 역시나 武士 화랑의 巫師 화랑이에 대한 우세를 확인할 수 있다. 범부는 사다함의 전투 활약상을 서사의 중심으로 삼아 이야기를 끝맺은 후, “斯多含附記”에만 사다함이 무관량을 따라 죽은 이야기를 실었다. 범부는 사다함의 巫師로서의 근원적 슬픔은 附記의 내용으로 제한하고 주 내용을 武士로서의 화랑으로 삼았던 것이다.

武士 화랑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비녕자(丕寧子)>를 꼽을 수 있다. 『화랑외사』에서 <김유신(金庾信)> 다음에 이어지는 <비녕자>는 김유신 장군의 막사(幕士)로 있었던 비범한 장사 비녕자가 적진에 뛰어들어 많은 적군을 베고 전사한다는 이야기다. 비녕자에게는 거진이라는 아들과 합절이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비녕자가 전사하자 거진은 비녕자가 합절을 통해 전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 많은 전적을 올리고 전사했다. 그러나 합절마저도 주인을 따라 적진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들로 말미암아 신라군은 사기를 얻어 적군을 몰아냈다. 즉 <비녕자>는 세속오계의 ‘임전무퇴’에 충실한 서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巫師 화랑의 면모를 다룬 작품이라 하기는 어렵다.

<취도 형제(驟徒兄弟)>도 <비녕자>와 유사한 이야기다. 취도란 본래 도옥이라는 승려가 실제사(實際寺)에서 수행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후 승려를 그만두고 몸담았던 실제사(實際寺)를 떠나 고친 이름이다. 도옥은 국난이 닥쳤는데 염불을 외워 극락에 가려는 심보를 비판하면서 도리어 “신라국 사미 도옥은 지옥 발원이요 지옥 발원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95)이라 하였다. 취도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는데 이 때문에 적군의 주요 표적이 되어 결국 전사했다. 그 후 그의 백형인 부과(夫果)가 실제사(實際寺)에서 취도의 장사를 지냈는데 다음날 새벽에 취도의 의대(衣帶)를 불사른 자리에서 빛이 나 절 근방을 모두 밝혔다. 그로부터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취도의 백형 부과는 장교로 출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지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고 동생에 대해 빛진 마음이 가득하여 결국 자신도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한다.

취도의 막내 동생 뽕실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전쟁에서 특별 전투대

장교로 출전해 백형·중형처럼 많은 공을 세워 신라의 승전을 이끌고 전사한다. 이 작품은 <비녕자>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녔는데 다만 불교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김흠운(金欽運)>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에 대한 이야기로 태종 무열왕 시기에 있었던 일을 다룬다. <소나 부자(素那父子)>는 신라의 백성(白城) 땅과 북쪽 땅이 적군에 침략 당하자 장사 부자인 심나(沈那)와 소나가 대활약을 하는 이야기다. <해론 부자(奚論父子)><sup>23)</sup>는 진평왕 시기 신라의 단잠성(檀岑城)을 침략한 적에 목숨을 버려 향기한 찬덕(讚德)과 그 아들 해론(奚論)에 대한 이야기이며, <필부(匹夫)>는 군사요충지 칠중성(七重城)을 지키는 주장(主將) 필부의 장렬한 전사에 관한 이야기다.

<사다함>에서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김유신>을 제외한 7편의 작품에서 드러난 화랑의 면모는 모두 武士이다. <김유신>에서는 김유신의 근원적 고독, 백결선생의 신선적 면모, 천관이 백결선생의 수양녀이자 제자인 점, 김유신의 칼에 천관의 혼이 깃든 점 등이 화랑 김유신의 武士 면모와 어우러져 있는 편이다.

물론 제목이 '김유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심은 巫師로서의 화랑보다는 武士로서의 화랑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유신 자체는 임전무퇴의 화랑정신에 입각한 군인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결선생이나 천관의 등장으로 인해 <김유신>은 武士 화랑이 巫師 화랑과 교류하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김유신>은 巫師 화랑과 武士 화랑이 함께 나타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화랑외사』에 소개된 10편의 화랑 이야기 가운데 <김유신>과 유사하게 武士 화랑과 巫師 화랑의 면모가 모두 발견되는 작품으로는 <물계

23) 단잠성의 신라군과 적군은 백여 일의 대치를 했고 상주(上州), 하주(下州), 신주(新州)에서 신라 지원군이 왔으나 목숨을 아끼며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해론의 아버지 찬덕(讚德)이 국가에서 맡긴 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며 일편단심을 맹세하고 해나무에 머리를 부딪쳐서 자결했다. 이후 그 아들 해론이 단잠성을 회복하라는 명을 받고 와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전사했다.

자>와 <백결선생>이 전부이며 이 인물들은 풍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 巫師

물계자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검술(劍術), 음악(音樂), 「검」(神靈)을 섬기는 묘리(妙理)는 말할 것 없고 혹은 처세법(處世法) 혹은 정치(政治) 혹은 군사(軍事)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 수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과목(科目) 수련의 준비 과정(課程)으로 정신(精神)의 수련부터 먼저 시켰다. 이를테면 검술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겐 먼저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겐 먼저 검술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빛이든지 도리(道理)란 두 가지 없다는 묘미(妙味)를 깨쳐 얻은 물계자로서는 으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26)

홍 멋(風流),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멋이야. 하늘에 통하지 아니한 멋은 있을 수 없어. 만일 있다면 그야말로 설멋(틀린 멋)이란 게야. 제가 멋이나 있는 채 할 때 벌써 하늘과 통하는 길이 막히는 법이거든. (130)

그러므로 숨을 고루는 것이 <얼>의 앞을 자리를 닦는 것이니 얼의 자리가 임의 룩고 난 뒤에야 무슨 수행(修行)이든지 할 수 있는 거야. (131)

(나) 武士

내해왕 십칠년 임진에 보라(保羅=시방 固城) 등을 비롯하여 모두 요렇게 생긴 여덟 나라가 세력을 모아 신라를 침노해 들어왔다. 그 때 관군은 왕자 날음(捺音)이 주장이 되어 이 여덟 나라 군사를 대항하게 되었는데 전세는 몹시 불리한 바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물계자는 갑주를 갖춘 다음 칼을 메고 한길에서 외쳤다. 『신라의 사나이들이 일어서라』 (...)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적국의 군사들은 많이는 달아나고 남은 장졸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131~132)

(가)-①의 내용으로 보아 물계자는 검술·음악·검을 섬기는 묘리, 처세법, 정치, 군사(軍事)를 묻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계자가 검술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과 ‘도리란 두 가지 없다는 묘미’를 깨우쳤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초점은 오직 武士로서의 면모에만 집중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국난이 닥치면 그에 맞는 역할은 해야 하지만 더욱 근원적인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가)-②를 보면 물계자는 ‘멋’을 강조하였는데, 멋이란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가)-③에는 ‘숨을 고루는 것’이 <얼>이 앓을 자리를 닦는 행위가 되며, 그 때에야 비로소 무슨 수행이든지 가능한 얼의 상태가 마련됨이 강조되어 있다. 여기서 수행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武士 화랑의 임전무퇴 및 애국정신도 그 중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물계자에게 ‘숨을 고루는 것’은 화랑에게 요청되는 위국헌신 관념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더욱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나)에서 물계자가 적국의 군사를 물리친 것은 근본적 도리의 다른 형태일 뿐이었던 것이다. 범부는 이를 풍류로 설명하며 물계자를 신선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백결선생도 물계자의 계보에 속해 있다. “물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 친히 모시고 지내는 듯한 모양을 보았는데 누가 물계자 말을 하면 그는 『물계자님은 죽을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었다.”(150)라는 언급은 백결선생이 물계자의 계통을 잇는 巫師 화랑임을 보여준다. “적국에 잘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내 나라 사람 다름없이 반가워했다”(152)는 백결선생의 면모도 맹목적 애국심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범부는 『화랑외사』에서 왜 대부분의 작품에서 맹목적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두 작품인 <물계자>와 <백결선생>에서 신선의 경지를 그려냈는가? 호국정신과 풍류 사이에 있는 『화랑외사』는 화랑에 대해 종교적·예술적·군사적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고 한 범부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이상할 것이 없기도 하다. 심지어 범부는 “무당이 하는 일 대부분이 고대의 화랑이 하는 일”<sup>24)</sup>이라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화랑외사』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색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고려한다면, <물계자>와 <백결선생>을 상당한 분량으로 엮은 이면적 의도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24) 김범부, 「국민윤리 특강」, 『화랑외사』, 이문사, 1981, 222쪽 : 홍기돈, 앞의 책, 72쪽에서 재인용.

범부는 물계자나 백결선생을 정신적 모형으로 삼고 武士 화랑들의 뿌리와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재건에 있어서 사상적 자문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정치권과 공명한 것을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도 위국헌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가 강조하는 풍류정신이 지극히 인간중심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김동리가 巫師 화랑에 대해 제의를 담당하는 여신관의 면모로 파악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을 시사한다.

풍류를 춤과 노래, 또는 멋가락 등으로 볼 때도 그것은 범부와 동리의 공통적인 요소로 간주하기 어렵다. 풍류가 신과 인간 중에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의 문제에서 범부와 동리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계자나 백결선생은 그들 스스로 멋의 원류가 되는 도인이나 신선인 반면에, 김동리의 역사소설의 신라인들은 검님을 숭배하고 검님과 감응하는 과정에서 풍류를 사용한다. 신을 섬겨 신과 닮아가는 것과 직접 신선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 IV.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에 나타난 화랑의 실제

범부의 화랑에 대한 인식은 원래 종교성, 예술성, 군사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범부의 화랑 인식에 대한 원 줄기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화랑외사』만큼은 군사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김동리의 화랑에 대한 인식은 1950년대에 오면서 범부의 화랑 인식과 길을 달리한다.

우선 범부의 『화랑외사』에는 武士 화랑에 큰 비중을 두고 임전무퇴의 화랑정신을 강조한 작품이 대부분인 반면, 김동리 역사 단편들에는 임전무퇴의 정신이 부각된 작품이 거의 없다. 군사적 움직임이 등장하는 작품은 기껏해야 <김양>과 <눌기왕자> 뿐이다. <호원사기>도 군사적 움직임의 동태는 있으나 반란이 방지된 채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전쟁·

전투 서사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위국헌신 관념으로 낭도들의 모범이 되는 『화랑외사』에서와 같은 화랑 미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세속오계의 규율을 기준으로 김동리 역사 단편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사군이충-교우이신-사친이효-살생유택-임전무퇴 순으로 빈도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임전무퇴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이 점이 매우 특이하다. 범부와 김동리의 화랑 관념이 뿌리를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화랑외사』에 묘사된 화랑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의 서사 경향>

작품	배경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애정서사	여신적 성격 (관련 화소)
검군	진평왕(26대)	○	○	○	×	○	○	·
회소곡	탈해왕(4대)	○	○	○	×	·	○	·
기파랑	효성왕(34대)	○	○	○	×	○	·	·
최치원	현강왕(49대)	·	·	△	×	·	○	○ (쌍둥이 원혼)
수로부인	성덕왕(33대)	·	·	·	×	·	○	○ (검님)
김양	흥덕왕(42대)	○	·	○	역성혁명	·	·	△ (하늘의 뜻)
왕거인	진성여왕(51대)	·	·	·	×	·	·	△ (하늘의 괴변)
강수선생(학정기)	태종왕(29대) ~신문왕(31대)	○	·	○	×	·	·	△ (연결된 운명)
눌기왕자	내물왕(17대) ~실성왕(18대)	○	·	○	역성혁명	○	·	·
원화(源花)	진흥왕(24대)	·	·	·	×	·	○	○ (검님과 감응)
우륵	진흥왕(24대)	·	○	·	×	·	○	○ (꿈의 현실화)

미륵랑	진흥왕(24대)	○	○	·	×	·	○	○ (불교+ 화랑)
장보고	흥덕왕(42대) ~문성왕(46대)	·	·	·	정의 구현	·	·	·
양화 (良禾)	신무왕(45대) ~문성왕(46대)	·	·	○	×	·	○	·
석탈해	남해왕(2대) ~유리왕(3대)	·	·	·	×	·	·	○ (한배넉, 겁넉)
호원사기	원성왕(38대)	·	·	△	반란 방지	·	○	△ (신불)
원왕생가	문무왕(30대)	·	·	△	×	·	△	△ (불교, 혼)
아리랑기	법흥왕(23대)	·	·	·	×	·	·	○ (밭그집+ 신불)

『화랑외사』의 화랑은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거나 마음 편한 일이라고 여긴다. 혼자 살아남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여 아버지의 유언도 뒤로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적을 쌓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죽으러 가는 것에만 혈안이 된 무사들이 『화랑외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범부가 원래부터 제시했던 화랑의 巫師다운 면모들이 어느 한쪽 특징으로 전유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나마 <물계자>와 <백결선생>은 화랑의 원래 모습을 남기고 있으나 그마저도 『화랑외사』의 맨 마지막 차례에 배치되어 <사다함>이나 <김유신>에 비해 덜 부각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이 주로 담고 있는 화랑의 면모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속오계에 비중을 두었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범부의 武士 화랑 서사가 호국불교 서사로 변화되었다는 관점, 셋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한 여신적 존재에 비중을 두었다는 관점이다.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는 우선 세속오계의 연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통 세속오계의 시작을 원광법사 이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

圓光의 世俗五戒는 역시 貫山에 依해 世上에 알려졌고, 貫山의 戰死를 契機로 花郎五戒로 普遍化되었다. 五戒 中에서도 臨戰無退 戒는 當時 三國 間에 戰爭이 頻繁하던 때인 만큼 가장 뚜렷하게 作用했고, 그것이 곧 孝悌忠信의 方法같이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여러 記錄에 의하면 新羅의 軍隊가 百濟나 高句麗보다 戰爭의 技術이 좋았다는 것은 決코 아니었다. 그런데도 모든 戰爭에서 新羅軍이 보다 많은 敵과 싸워 勝利를 거두곤 했던 原因은 바로 臨戰無退 精神에 있었던 것이다.<sup>25)</sup>

(라)

““今有世俗五戒”라고 하여 그 당시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계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 화랑들만의 특정계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속오계가 화랑들만의 것은 아니며, 원광법사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의 독창적인 견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당시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정신이 당대의 석학의 탁월한 식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표현된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sup>26)</sup>

(다)를 보면 세속오계가 원광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의 “今有世俗五戒”라는 말은 당시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세속의 계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김동리가 원광에 의해 구체화된 세속오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오히려 김동리는 원광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보급되어 신라인들에게 내면화된 어떤 규범을 재현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들이 범부가 『화랑외사』에서 임전무퇴에 집착하다시피 한 바탕 의도와는 또 다른 의도에서 기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임전무퇴 정신도 원광 이전의 것일 수 있고, 범부가 그것을 형상화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화랑외사』 10편 중 8편이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귀산 등에게 전파한 전후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25) 김충렬, 「화랑오계의 사상배경」, 『아세아연구』 14-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210쪽.

26) 김정갑, 「화랑도와 세속오계」, 『한국학』 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45쪽.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부는 세속오계의 일부로서의 화랑정신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물계자>는 10대 내해이사금 때의 인물이며 <백결선생>은 20대 자비마립간 때의 인물이다. 이들은 화랑의 원형을 보여주지만 『화랑외사』에서 가장 뒤쪽에 배치되었다. 국가가 호명한 화랑정신과 『화랑외사』(1954)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화랑외사』의 시대 배경과 세속오계 전파 시기>

물계자	백결선생	사다함	해론부자	비녕자	김흠운	김유신	필부	소나부자	취도형제
10대 내해왕	20대 자비왕	24대 진흥왕	26대 진평왕	28대 진덕왕	29대 무열왕	29대 무열왕	29대 무열왕	30대 문무왕	31대 신문왕

↑

원랑의 세속오계 전파

두 번째는 범부의 武士 화랑 서사가 호국불교 서사로 변화되었다는 관점에 대한 것이다. 이는 범부와 동리의 화랑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한 줄기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화랑외사』의 <김유신>의 천관은 백결선생의 수양녀이자 제자로 있다가 김유신과 속세에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불도에 귀의한 인물이다. 이는 신라의 선교가 불교와 만나는 지점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화랑정신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불교가 만나면 호국불교가 탄생하는데 범부의 『화랑외사』가 그 지점을 잘 보여준다.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들 중에서도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이 있다. <미륵랑>과 <아리랑기>에는 불교와 화랑도의 결합 구도가 나타나고 <원왕생가>에는 불도에 정진하는 두 승려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중에서도 진흥왕 대를 배경으로 한 <원화>, <우륵>, <미륵랑>은 3부작으로 발표되었는데, 1부 <원화>에서는 전통적인 검님의 신라인에 대한 영

향력이 ‘꽃핀다’라는 말로 부각되었는데 2부에는 꿈의 역할이 커지며, 3부인 <미륵량>에서는 불도를 통한 화랑도 발견으로 기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범부와 동리의 화랑 인식이 불교를 중심으로 서로 교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화랑외사』나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에서 불교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불교와 화랑도의 결합 구도는 『화랑외사』와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을 어느 정도 아우를 수는 있어도 두드러질만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점은 바로 여신적 성격의 유무이다. 이는 범부와 동리의 화랑에 대한 인식 차이를 잘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화랑외사』에는 지극히 축소되어 나타나는 巫師 화랑에 대한 서사가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들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치원>에서는 쌍둥이의 원혼이 등장하고, <수로부인>에는 검님이 수로부인을 데려갔다가 순정공이 제사를 지낸 뒤에야 부인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다. <원화>에는 검님에 의해 ‘꽃 피어’ 전혀 다른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석탈해>에는 한배님 또는 검님이 나오며 <아리랑기>에는 신불과 통하는 ‘발그검’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화랑외사』의 물계자와 백결선생이 신선이 되는 방식과는 또 다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차이는 여신적 성격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삶의 양면성이 고루 드러난다는 점에 있다. 범부의 『화랑외사』는 인물의 비극적 요소를 모두 기쁨으로 바꾸어 다음 희생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동리의 역사 단편소설의 인물들은 역지로 희생하지 않으며 인간답게 잘 흔들리지만 삶의 양면성을 주시하며 모순의 양 극단 속에 너끈히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다. 즉 범부와 동리의 화랑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신라인의 삶에 대한 인위적 재현 여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들의 핵심은 신라인이라는 원형 그 자체로서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재단한 관념을 지양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모는 주로 등장인물의 비극적 결말과 검님의 작용을 다룬 서사를 통해 부각되

고 있다. 김동리의 역사소설들 가운데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은 <검군>, <회소곡>, <기과랑>, <최치원>, <원화>, <양화>, <호원사기>, <아리랑기>로 총 8편에 달한다.

<검군>은 주인공 검군이 쌀을 훔치자는 창애창 사인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고 정직을 지키려다가 독살 당하는 이야기이고, <회소곡>은 천생연분으로 만난 회소와 나미가 전쟁으로 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과랑>은 영종이 딸 정화의 누명을 벗기려다가 반역자가 되고 셋째 아들 기과랑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최치원>은 동반 자살한 수랑 자매의 비극이고 <원화>는 원화들 사이의 질투로 인한 비극이며 <양화>는 장보고의 딸 양화가 염장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사랑을 약속한 경응과 인연을 맺는 데 실패하여 유명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원사기>는 인연을 맺은 남녀가 여자의 오빠들이 일으킨 반란 음모 때문에 사별하게 되는 이야기다. <아리랑기>는 아리랑국의 멸망기로서 간첩으로 침투한 신발과 가리공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을 다룬다.

상기 작품들에는 『화랑외사』에서처럼 미담으로 기억될 만한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작품들의 서사는 매우 현실적이고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획득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극으로 보이는 이 작품들에 생의 구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극적으로 결말 부분을 처리하면서도 김동리는 생의 구경 탐구라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금강 꼭대기에서 한 너댓 발이나 올라온 저 대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쯤 와서 신라 서울을 두루 비추고 있었을 때에는 독 쉼인 술잔을 집어던진 채 오히려 웃음을 웃는 듯한 얼굴로 쓰러져 누워 있는 검군의 얼굴을 굽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15:29)

물론 검군과 악부의 우애는 미담으로 삼을 만하며 세속오계의 교우이신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미담에 오를 만한 검군의 정

직성은 결국 독살의 대상이 되며, 그 일은 매우 상서로운 대보름날에 진행된다. 보름달과 독주(毒酒)는 서로 모순인 채로 병존하며 정의로운 검군의 죽음에 보름달은 웃음을 웃는 듯한 얼굴로 검군의 얼굴을 바라본다.

<회소곡>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긍정적 필연성과 사별이라는 부정적 필연성이 나란히 병존한다. <기과랑>, <원화>, <양화>, <아리랑기>는 특히 인간 삶의 모순된 양태들을 적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면 삶이 모순적인데 추구하는 관념이 단선적인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김동리 역사소설 창작의 기본 구도임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범부의 『화랑외사』는 임전무퇴, 애국심 등의 관념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 <사다함>으로부터 <필부>까지는 삶을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이것이 범부와 김동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화랑외사』의 <물계자>나 <백결선생>과 동질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김동리의 작품은 <왕거인>, <강수선생>, <우륵>, <미륵랑> 정도이다. 이들 작품에는 주인공이 자연물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거나 속세에서 사라지는 서사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풍류정신으로 설명 가능한 이 작품들은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화랑외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범부가 내세우는 풍류정신이 과연 『화랑외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범부와 동리는 화랑 인식에 있어서 풍류정신 이외의 다른 방향을 고려한 듯하다.

범부는 그의 사상을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하였으며 그가 강조한 화랑정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동리의 화랑은 생의 구경적 형식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 수단이 아닌 신인간주의의 목적 자체가 된다.<sup>27)</sup> 신인간주의의 모델로서의 화랑은

27) 『화랑외사』의 첫 번째 작품은 <화랑가>인데 이는 진흥왕 때 제작된 도령가를 찾을 수 없어서 범부가 자기 나름대로 창작한 노래 가사이다. 그가 회복하려는 것은 진흥왕 때의 화랑 혼이라는 점에서 김동리가 재구하려는 화랑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풍류정신의 차원에서는 진흥왕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러한 화랑의 어떤 모습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범부와 김동리는 차이를 보인다.

武를 전체적 요소로 삼지 않으며 巫, 즉 여신적 성격을 품게 된다. 범부는 다분히 목적지향적인 정신으로서의 화랑을 말했다면, 동리는 어느 하나의 목적에 치우친 인간 정신이라기보다는 신과 인간의 합일적 지점에 있는 화랑을 말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김동리가 주목한 것은 딱히 화랑에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동리 역사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란 『화랑외사』에서 영웅으로 묘사된 화랑이 아니라 대부분 신라의 평범한 각계각층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생활 방식 안에 우리가 세속오계라고 규정할 수 있는 특징들도 더러는 발견되지만, 그것을 화랑이라는 관념 안에 꼭 맞춰 넣기는 어렵다.

## V. 마무리

‘김동리는 왜 1950년대에 역사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는가?’라는 질문은 범부와 동리를 분리시키는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범부와 동리를 함께 묶어 논했으며 김동리를 그저 청문협외의 회장이자 우익 문단의 기수로만 보았기에, 그의 역사 단편소설 창작을 범부의 『화랑외사』나 『풍류정신』 범주 바깥에서 살피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김동리의 역사 소설들은 1950~60년대 정부의 시책과 공명한 범부의 그늘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며 그의 소설은 다분히 우익적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띤 전통 지향적인 작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범부의 풍류정신과 동리의 신라혼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동종의 정신이라면, 1950년대 역사 단편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1954년에 출간된 『화랑외사』와 거의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범부의 『화랑외사』와 김동리의 역사 단편소설들을 대조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치하는 부분보다는 어긋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신라시대 화랑의 인식에 있어서 범부와 동리의 공통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속세를 멀리하려는 풍류도를 작품을 통해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풍류라는 요소는 화랑정신의 근간이 된다고 알려진 것에 비해 범부와 동리의 작품들에서

는 크게 드러나지 못한 편이다. 오히려 범부는 풍류보다 임전무퇴라는 군인정신을 우선시하면서 풍류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이에 반해 동리는 남녀 간 사랑, 여신적 삶의 형태, 비극적 결말 등을 두루 채택하며 일률적으로 굳어진 화랑 관념을 뒤집었다. 이는 문학이 어떤 다른 것에도 복무해서는 안 된다는 김동리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 사이에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여신적 성격의 주체가 등장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범부는 화랑의 성격을 종교성, 예술성, 군사성으로 다양하게 정리해놓았으나 1950~60년대 범부의 활동은 거의 화랑의 군사성에 치우쳐졌다. 그가 민족주의자에다 육군 장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화랑외사』의 기획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그가 박정희 정권의 통치 이념에 있어 자문 역할을 했고, 이선근 문교부 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은 화랑의 민족주의 우파적 전유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인들에게 사상적 구심점이 되는 화랑의 숭고한 면모를 정치적 목적에서 활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건국 이념을 정립하여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관념의 전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그러한 범부에게 화랑에 대한 것을 전수받았다는 김동리의 역사소설이 온당치 않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화랑의 본래 모습은 巫師로서 신라시대 초기부터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이사금 등으로 불리며 왕이자 제사장의 모습을 지닌 제정일치의 지도자였다. 화랑은 여신적 성격을 통해 인간과 신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는 범부가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화랑의 巫師性을 제거하고 武士化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부의 풍류정신과 김동리가 추구한 신라혼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할 경우, 김동리의 역사소설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게 된다. 김동리의 1950년대 역사 단편소설에 대해서는 범부의 영향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sup>28)</sup>

김동리는 신라 화랑이 정치적으로 전유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화랑이야기를 들려준 백형 범부는 나라 일을 한다면서 마치 정신적 지주와 같이 여긴 화랑정신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화랑외사』 발문에는 범부에 대한 은의를 고마워하며 그 가르침에도 존경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발문을 가지고 범부와 동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범부는 신라에서 오로지 화랑의 임전무퇴와 약간의 풍류정신을 가져왔다면, 김동리는 신라 자체를 그의 역사 단편소설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1949년의 <검군>이나 1950년대 중후반의 여타 역사 단편소설들은 1954년 『화랑외사』와 정반대되는 기획에 따라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아 1977년의 『역사소설-신라편』 간행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통일전 건립 지시에 담긴 화랑정신의 정치적 전유 의도와 대척점에 있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신라혼의 핵심 개념이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을 거부하는 김동리의 문학적 대응이었을 지도 모른다. 동리는 범부가 박정희 정권의 정신적 이정표가 된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그만큼 동리는 범부와 같은 뿌리에서 났으면서도 서로 다른 각도로 화랑을 바라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김동리의 역사소설과 김범부의 『화랑외사』의 주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범부가 국난극복기에 『화랑외사』를 출간한 것은 당대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공명했지만, 범부의 동리에 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김동리 역사소설들을 같은 부류로 보

---

28) <검군>은 다른 역사 단편소설과 달리 1949년에 발표되었기에, 1950년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화랑외사』의 출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년의 한국전쟁을 고려할 때 1949년은 『화랑외사』가 출간된 1954년과 그리 멀지 않다. 해방 공간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였던 만큼 화랑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전유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김동리에게도 큰 유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군>의 주인공은 화랑이 아니며, 부모를 걱정하거나 나라에 충성하거나 친구인 악부와 두터운 교분을 유지하는 나라 곳간의 일개 하급관 리일 뿐이다. 화랑을 인위적인 특정 면모 속에 제한하지 않고 신라인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그려 넣는 것이 김동리의 방법이었고, 거기서 <검군>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동리는 화랑정신이 공공연하게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이념으로 전유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역사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다. 이는 화랑의 정치적 전유에 대한 공명이 아니라 김동리만의 문학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동리, 김동리기념사업회 엮음,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15: 검군』, 계간문예, 2013.
- 김범부, 『화랑외사』, 범부선생유고간행회, 삼화인쇄주식회사, 1967.
- 김범부, 『범부 유고: 정치철학특강』, 이문출판사, 1986.
- 김병길, 「김동리 역사소설 "신라연작"의 "신불(神佛)" 신앙 연구」, 『선문화연구』 1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325~353쪽.
- 김연철, 「화랑정신의 사상적 맥락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20-1, 한국국민윤리학회, 1984. 79~97쪽.
- 김정갑, 「화랑도와 세속오계」, 『한국학』 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37~53쪽.
-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3.
- 김충렬, 「화랑오계의 사상배경고」, 『아세아연구』 14-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205~223쪽.
- 남정희, 「『김동리 역사소설-신라 편』에서 원전의 기이성(奇異性)을 제거한 점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학회, 2014, 425~451쪽.
- 정다운, 「凡父 金鼎高의 『花郎外史』에서 본 「花郎觀」」, 『동북아 문화연구』 1-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129~143쪽.
- 황중연 외, 『신라의 발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 소종섭, 「김범부-박정희, 김평우-박근혜, 2대에 걸친 인연」, 『시사저널』 1431, 2017.3.21.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324>, 2019년 10월 7일 검색.

Abstract

## Kim Dong-li's Literary Responses to Nation's call for Hwarang Spirit

-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Beom-boo's 『Hwarang-oesa』 and Kim Dong-li's Short Historical Novels -

Jeon, Gye-seong

Mostly, Kim Dong-li's thought about Hwarang spirit is considered that it was originated from his brother Beom-boo. Researchers think Dong-li and Beom-boo actually share the same ideological base, Hwarang. But actually, the two are so different. While his brother possessed Hwarang exclusively for political end in 1950s, Dong-li tried to recover the Hwarang consciousness contaminated from nationalism with his historical novels. He focuses on Hwarang not as a warrior but as a shaman of Silla. We can find several differences between Beom-boo and Dong-li through Beom-boo's 『Hwarang-oesa (Behind Stories for Hwarang)』(1954) and Dong-li's short historical novels(1950s). Despite Dong-li's admiring epilogue for Beom-boo, his view are not the same as Beom-boo's.

**keywords :**

Kim Dong-li, Kim Beom-boo, Hwarang Spirit, soul of Silla, Hwarang-oesa(Behind Stories for Hwarang), Historical Novels, Literary Response

